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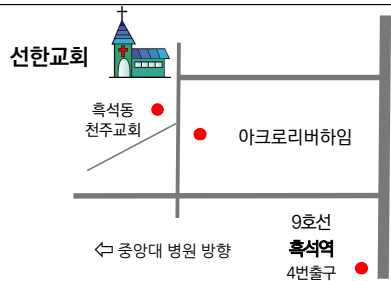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 육 목 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5장 (통일찬송가 50)
교 독 문	교독문 35 (시편 84편)
찬 양 과 경 배	364장 (통일찬송가 482장)
대 표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7장 7~11절
설 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피해야할 삶의 방식 (잠6:1-19)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9월 27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기도회는 영상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레위기1장~민수기27장]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교제하는 한주간의 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주님만 계시기를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가정예배	예외는 없다
찬송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통 331)	
본문 : 아모스 2장 4~16절	
말씀 : 세계와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다메섹(아람)과 가사(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암 1:1~2:3) 주님의 선고 주문을 요약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따져 물은 “서너 가지 죄”는 대개 공의와 자비를 저버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를 말합니다. 비도덕적이고 잔인무도한 살육과 인신매매가 승자의 오락 거리처럼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웃 나라와 경쟁하며 살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들에게 쏟아진 심판 선고를 듣고 싫어했을 리 없습니다. 놀랍게도 공의롭고 엄정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마저 주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게다가 심판 기준도 강화합니다. 도덕의 타락과 함께 주님과의 언약, 곧 율법을 버린 죄를 따집니다.	
먼저 유다를 봅시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예루살렘 궁궐과 요새가 불탈 것을 예언할 정도로 유다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흘러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4절)	
유다가 지적받은 율법을 업신여긴 죄는 이스라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 했지만,(신 15:7~11) 이스라엘은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빛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괴롭혔습니다.(6절)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했고, 강성한 족속 아모리도 물리치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으면 겸손하거나 감사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 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오만하고 무모했습니다.(8절)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우고 나실인도 불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억압하며 조롱하기만 합니다.(12절)	
교정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이의 오만을 주님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기에 오히려 더 엄하게 선고합니다. “용사라도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14절) 주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라도 그 법정을 적당히 피해갈 공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마7:7-11)	
서론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론	1. 기도에 대한 약속 (1) 보편적 약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받는다’(7,8절). (2) 구체적 약속: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9-11절). (3) 최고의 약속: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3) 2. 교훈 (1)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나는 이 약속들을 체험하고 있는가? (2) 기도의 응답이 있을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3)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결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약속의 본질은 지키는데 있다	날짜 : 9월 21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본문	예레미야 34:8~22		
	지금 유다와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 침공 앞에서 나라가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해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와 권력자들은 이 침공이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지금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바벨론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정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다.(32장 2절) 하지만 그렇다고 시드기야와 권력자들이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했던 것 같다. 그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를 공의롭게 통치하는 분임을 믿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풍요를 보장해주는 여러 이방 신과 더불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여호와도 함께 섬기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 섬기는 방식은 이방신을 섬기듯 제사를 비롯한 종교 제의와 안식일과 정결법과 같은 종교적 규례에 한정되었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 사회 제도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순종의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가 몰락하고 자신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상황에 몰리자 그들은 종교적 제의나 규례를 넘어 삶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찾아낸 것이 자신들의 종 가운데 히브리 동족을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돌려주는 것이었다.(8-10절)		
묵상질문	1. 약속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언약을 어긴 자들의 최후
찬양과 기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새 546/통 399,)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공부하고 21세에 요크셔 지역 국회의원이 됩니다. 25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타락한 당시 영국 정치계를 떠나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는다”라는 존 뉴턴 목사의 말에 감명을 받고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정치계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웨슬리 형제단이 주도하는 부흥 운동에 의해 많이 변화되었지만 상류층의 부조리와 불공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 상류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류층은 노예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이것이 곧 그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운동에 매진합니다. “나는 결과가 어떠하든 이 시간부터 노예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반대를 받았지만 기독교적 신념을 의회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예무역 폐지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합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인 1833년 7월 26일 이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 영국에서 노예 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개인의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34:8~22	
묵상포인트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출 2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대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신 15:12). 하나님이 동족 노비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노비 삼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에 치명적인 위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을 노비 삼은 지 7년이 지나도 그들을 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왕과 예루살렘 거민은 히브리 노비 해방을 서둘러 선언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자 백성은 마음이 변해 자유롭게 해 주었던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도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계약 파기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16절). 그들 마음에는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드기야왕과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나요?(8~10절) 이후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11절)	
적용하기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회개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 말씀을 제 삶의 기준 삼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은연중 멀리하며 죄인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 깨닫게 하시어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보다 제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불태운 말씀	날짜 : 9월 25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예레미야 36:20~32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 23년간 받았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바룩이 성전에서 낭독을 했다. 이 말씀에 대해 대부분의 백성들은 무관심했지만 일부 서기관과 고관들은 너무도 놀라 이를 왕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15-16절)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을 염려하며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이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법이다. 그들은 그 동안의 여호야김 왕의 행적을 볼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을 것을 요청한 후 왕에게 나아갔다. 그들의 짐작대로 여호야김은 보란 듯이 두루마리를 불사르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했다.(23-26절) 마땅히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선지자를 향해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물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두루마리를 태우고 선지자를 죽이려 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온 몸으로 막아섰던 모세의 전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재촉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의 전통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유다의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불태운다고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없앨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 그 기록까지 포함한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했다.(28-32절)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시면 그를 잡을 수도 없었다.(26절) 이스라엘 왕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서 백성을 하나님으로 말씀 아래로 이끌어올 때에만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적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는 그는 왕으로서의 형식적 지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떠나 있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자에 불과하다.		
묵상질문	1. 내 삶에 적용하기 너무 힘든 말씀, 그 앞에 우리의 자세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신앙의 엄격과 고집스러움	날짜 : 9월 22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 가며		
본문	예레미야 35:1~11		
	35장은 여호야김왕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레갑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다. 레갑 사람들은 유다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대아인과 수리아인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칠 때(열왕기하 24장 1-2절)에 그들의 공격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피난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조상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주했는데, 아합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어 이스라엘을 혼합종교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후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아합 왕을 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이 권유를 받은 요나답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열왕기하 10장 15-17절) 이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오직 장막에 거주할 것을 명했다.(6-7절) 그리고 그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그 때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묵상질문	1.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집스럽게 노력하는부분이 있는가?		
오늘의 기도			

매일 Q.T.		레갑족속과 유다 사람들	날짜 : 9월 23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35:12~19		
	본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을 실례로 들어 유다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술을 금하고, 장막 생활을 하였던 바,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 축복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율법을 거절하는 유다의 배도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본장은 레갑 족속의 신실성과(1~11절), 레갑 족속의 모범(12~17절) 그리고 레갑 족속의 신실성에 대한 보상(18~1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레갑 족속과 유다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레갑 족속이 선조의 명령에 의거하며 포도주를 마시라는 선지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데 반하여, 유다는 거둬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불순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다만이 언약 백성이며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간주하던 백성들이 얼마나 허황된 교만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참된 성도라면 이들과 같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며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가진 순종의 자세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익숙함의 함정	날짜 : 9월 24일
찬양	찬송가 483장 구름같은 이 세상		
본문	예레미야 36:1~19		
	여호야김 왕 제 4년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격파하고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한 해였다. 이는 예레미야가 처음에 받았던 예언, 북방에서 오는 재앙이 그 실체를 드러낸 해였다. 동시에 이 해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는 해였다.(25장 3절) 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한다.(1~2절) 이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그 동안 선포했던 말씀을 총 정리해서 다시 들려줌으로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3절)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에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에게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기록하게 한 후 그 내용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한다. 예레미야 자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5절) 대부분의 백성들이 말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 의례로서의 금식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일부 고관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이 종교적 의례로서 금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릎을 꿇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11~17절)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왕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아니 듣지 않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나 바룩을 죽이려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차원에서 이를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 왕이 어떻게 반응하든 왕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어있으라고 말하고는 왕에게 나아갔다.(19절)		
묵상질문	1. 난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밀한 관계입니까?		
오늘의 기도			